해남반도 마한산성의 재인식*

양시은**

Ⅰ. 머리말
Ⅱ. 해남반도의 고대 산성 현황
Ⅲ. 해남반도 마한산성에 대한 재인식
Ⅳ. 맺음말

【국문초록】

본 논문은 해남반도 마한산성의 현황을 고고학적으로 검토해본 것이다. 이를 위해 본문에서는 우선 원삼국시대에서 삼국시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진 해남지역의 고대 산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해남지역에서는 마한 시기의 성곽이라고 할 만한 유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마한 초기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유적으로 옥녀봉토성이 거론되고 있으나, 현지 조사에서도 토성이라고 할 만한 분명한 증거는 확보할 수 없었다. 토성벽의 인위적인 조성 흔적이 발굴조사를 통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는 한, 현 시점에서 무리하게 마한의 토성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영남지역에서는 4세기 이후에나 토성이 조영되기 시작하였으

* 해당 논문은 해남군과 백제학회 및 (재)대한문화재연구원이 2018년 7월 12일에 개최한 『해남반도 마한 고대사회 재조명』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 충북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부교수

며, 그 이전에는 목책이나 환호 등으로 방어가 이루어진 취락 유적이 확인되고 있다. 이를 통해 본다면 해남반도 역시 유사한 시기의 고지성 취락 유적이 확인될 가능성이 높은데, 보성 조성리와 장흥 지천리의 환호유적의 사례를 보더라도, 옥녀봉토성은 방어시설을 갖춘 고지성 취락유적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향후 옥녀봉토성에 대한 앞으로의 발굴조사는 해남반도에 존재하였던 마한 정치체의 모습을 이해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 해남, 마한, 산성, 옥녀봉토성

Ⅰ. 머리말

3세기경 한반도 내 정치체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三國志』 魏書東夷傳에 따르면, 馬韓은 '모두 50여국으로, 큰 나라는 萬餘家, 작은 나라는 數千家로서 총 10여만戶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산과 바다 사이에 흩어져 살았는데, 城郭이 없었다'라고 묘사되어 있다. 상기 기록과 같이 마한에 성곽이 존재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같은 『삼국지』 위서동이전에서 '그 나라 안에 무슨 일이 있거나 관가에서 城郭을 쌓게 되면, 용감하고 건장한 젊은이는 모두 등의 가죽을 뚫고, 큰 밧줄로 그곳에 한 丈쯤 되는 나무막대를 매달고 온 종일 소리를 지르며 일을 하는데, 아프게 여기지 않는다. 그렇게 작업하기를 권하며, 또 이를 강건한 것으로 여긴다'라고 하여 마한에서도 성곽을 축조하는 작업이 있었다는 상반된 기록이 있을 뿐 아니라, 같은 시기의 辰韓과 弁辰에는 '城柵'과 '城郭'이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마한 성곽은 문헌기록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당연

히 고고학 자료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만 그 실체를 밝힐 수 있다. 지금까지의 고고학 연구 결과를 놓고 본다면, 해남반도를 포함한 호남지역의 마한 세력은 『三國史記』 百濟本紀의 기록과는 달리 한동안 백제에 복속되지 않고 독자적인 세력을 유지하였음이 확인된다. 고대사학계에서는 서남해안지역의 마한 세력을 『삼국지』 위서동이전 내 韓傳에 등장하는 臣雲神國, 『晉書』 張華傳에 등장하는 新彌國, 『日本書紀』 神功紀 49년조에 등장하는 忱彌多禮 등과 연계하여 설명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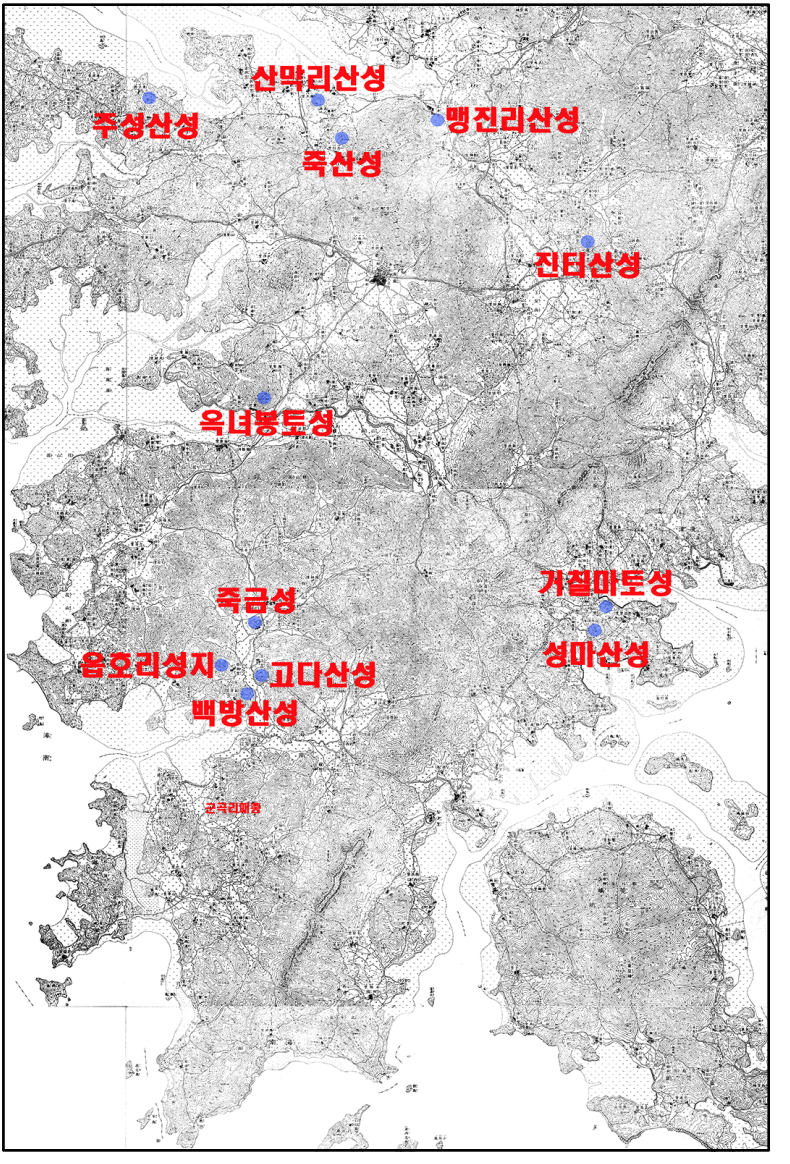
그렇지만 본 논문은 해남반도의 마한산성에 대한 고고학적인 검토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본문에서는 우선 원삼국에서 삼국시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진 해남지역의 고대 산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이후 마한 산성의 실체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Ⅱ. 해남반도의 고대 산성 현황

목포대학교박물관에서 2003년에 발간한 해남군 문화유적분포지도에 따르면, 해남지역에는 27개소의 성곽이 분포하고 있는데, 그 중 원삼국~삼국시대에 축성된 것으로 알려진 성곽은 12개소이다. 이들 성곽 중 일평리성지(죽금성)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적은 아직까지 시굴조사 내지는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그 축성 시기와 활용 주체를 비롯한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 관계로, 기존 지표조사를 통해 밝혀진 최소한의 정보만을 가지고 축성 시기를 막연하게나마 추정하고 있을 뿐이다.

삽도 1은 조선총독부에서 1918년에 간행한 1:50,000 지형도에 해남지역 고대 성곽의 위치를 표시한 것이다. 그간의 활발한 간척사업으로 인해 해남 일대의 지형이 많이 바뀐 만큼, 그나마 원지형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지형도에 유적의 위치를 표시해본다면 산성의 입지에 따른 축조 배경 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림 1> 해남반도의 고대 산성(1:50,000 - 1918년 지형도)

<표 1> 해남반도의 고대 산성 현황표
(목포대학교박물관, 2003: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2013)

이름	입지	성벽	출토유물
옥녀봉토성	포곡식+산정식 해발 200m	토성 석심토축, 토축, 석축보강 계단식 토벽	경질무문토기 격자타날문토기 옹형토기 등
죽금성 (일평리성지)	산정식 해발 52m	석성(173m) 후대 석축	경질토기편 삼국토기편 고려 자기,기와
읍호리성지	포곡식 해발 100m	성벽 불분명 토성? 석성? 석심토축	격자타날문토기 자기편 갑발
고다산성 (성매산성)	산정식 해발 97m	석성(450m) 여장,치,문지	격자타날문토기 조선 기와편
백방산성	산정식 해발 200m	석성(200m) 계단식 토축단	경질토기편 기와편
거칠마토성	산정식 해발 44m	토성(290m) 계단식 성벽	삼국토기편
성마산성 (신월리산성)	산정식 해발 87m	토성(290m)? 석심토축, 석축보강 계단식 성벽	삼국토기편 기와편
주성산성	산정식 해발 101m	토성(350m) 계단식 2단토벽	
산막리산성	산정식 해발 139m	성벽 미확인(2003년) 토성(500m)? 계단식 성벽	
죽산성	산정식 해발 157m	석성(780m) 계단식 성벽	회청색경질토기 고려 기와편
맹진리산성	산정식 해발 87m	성벽 미확인(2003년) 석심토축?	
진터산성	산정식 해발 159m	토성(290m) 장대지, 수구	경질토기편

<표 1>은 해남반도에 분포하는 고대 산성의 목록과 간략한 현황을

제시한 것인데, 목포대학교박물관에서 2003년에 발간한 해남군의 문화유적분포지도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로 한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2개의 고대 성곽 중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곳은 일평리성지 뿐이며, 옥녀봉토성의 경우에는 명지대학교부설 한국건축문화연구소에 의해 2003년에 별도로 정밀 지표조사가 실시되었다. 그리고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2013)에서도 영산강유역 고대 산성의 현황 조사에서 해남 지역을 다루었으나, 기존 조사 내용을 확인하는 정도의 수준이었다.

<표 1>과 <그림 1>을 살펴보면, 해남반도의 고대 산성 유적은 진터산성을 제외한 모든 산성이 해안가에 인접한 구릉에 입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서해와 남해가 연결되는 지정학적인 요충지인 해남반도가 고대부터 중국과 일본을 연결하는 연안해상교통로의 중요 지점이었음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사실은 중국 王莽이 세운 新(9~25년)의 화폐인 貨泉이 출토된 군곡리패총을 통해서도 추정해볼 수 있는데, 호남지역에서는 중국 화폐(화천, 오수전) 외에도 중국식동검이나 한경, 철경동촉, 낙랑토기 등이 출토되는 유적들이 분포하고 있어 초기철기시대부터 이미 서해안 해로를 통해 중국과 교류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해남반도를 지역 거점으로 한 고대 정치체들은 해상교통로를 통제할 수 있는 서남해 연안지역의 구릉에 성을 쌓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 산성 유적들은 옥녀봉토성처럼 단독으로 분포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몇 개의 성곽이 군집을 이루며 분포하기도 한다. 군집 분포하고 있는 성곽의 경우에는 발굴조사 등을 통해 축성 및 활용 시기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만 고대 정치체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겠으나, 현재의 정보만으로는 더 이상의 내용을 파악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1. 일평리성지와 옥녀봉토성

해남지역 고대 성곽 중에서 유적 일대에 초기철기 내지는 원삼국시대에 해당하는 패각층이 확인되는 유적은 옥녀봉토성과 일평리성지(죽

금성)[1]로, 이 일대가 마한 초기부터 주민들이 생활을 영위하던 곳이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사진 1> 일평리성지(죽금성)의 고려시대 성벽

죽금성으로도 알려진 일평리성지는 일평마을 북서쪽 구릉(당뫼) 정상부(해발 52m)에 축성된 둘레 173m 내외의 소규모 테뫼식 산성이다. 구릉 정상부 주위로 석축 성벽이 둘려져 있고, 내부에서는 삼국시대 토기편들과 함께 고려시대의 자기 및 기와편들이 다수 확인된다. 전남문화재연구소(2016)에서는 발굴조사를 통해 출토유물과 산성의 입지조건 및 축조방식을 근거로 삼국시대에 처음 축조되어 사용된 산성으로 추정한 바 있다. 그리고 성벽 외곽에서는 성곽 축조 이전 시기에 존재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방형계 주거지, 구, 수혈 등이 확인되었다. 실제로 필자가 현지 조사할 당시에도 성지가 있는 구릉의 8부 능선에서 파수, 타날문 토기편, 뚜껑 편, 파상문과 삼각거치문이 각각 시

1) 전남문화재연구소(2016)가 조사한 일평리성지 외곽의 1호 수혈에서도 상면에서 패각이 다수 확인되었다. 내부에서는 우각평파수부편, 적갈색연질토기편, 회청색경질토기편 등이 출토되었다고 한다.

문된 토기편 등을 수습할 수 있었다. 이 밖에도 이도학(1995)의 보고에 따르면, 일평리성지와 주변 고분군에서는 가야계 토기도 확인되고 있다.



<사진 2> 일평리성지(죽금성) 주변 채집 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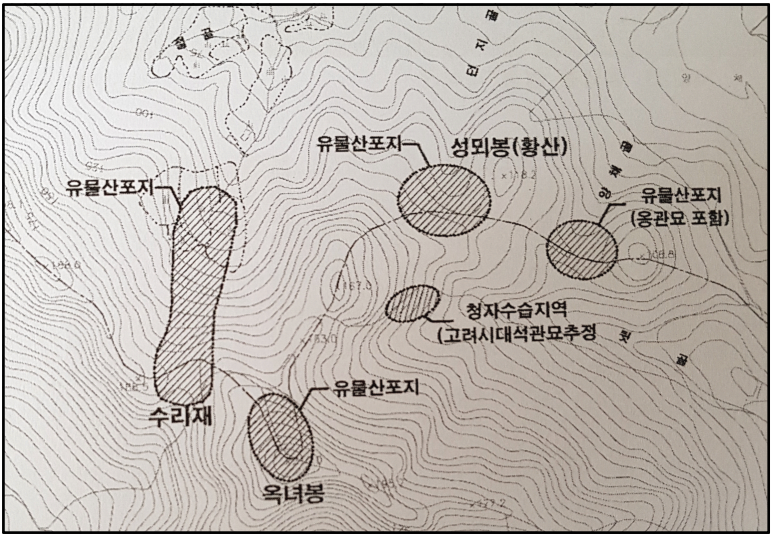
옥녀봉토성은 2003년에 명지대학교부설 한국건축문화연구소가 옥녀봉 일대 전체 구역을 정밀지표조사 한 바 있다. 당시 조사에서는 경질무문토기, 타날문토기 등과 옹관 파편 등 3~5세기대로 추정되는 여러 유물들이 수습되어, 옥녀봉 일대에 마한시기에 해당하는 유적이 존재하고 있음이 분명해졌다. 다만 토성 여부에 대한 결론은 내리지 못하였는데, 이는 지표조사만으로는 추정 토성벽에 대한 인위적인 축조 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도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해결될 수 없다. 이번 현지 조사에서도 경질무문토기, 시루의 파수, 격자타날문 연질토기, 타날문 경질토기 등을 수습할 수 있었다.



<사진 3> 옥녀봉토성 전경(북쪽)



<사진 4> 옥녀봉토성 전경(남쪽_용두리고분에서)



<그림 2> 옥녀봉토성 평면배치도
(명지대학교부설 한국건축문화연구소, 2003)



<사진 5> 옥녀봉토성 계단식토벽 상면부 일원 채집 토기편

2. 고다산성



<사진 6> 백방산성(좌측)과 고다산성(우측)

남한 지역의 석성은 대체로 5세기 이후에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고다산성과 백방산성 역시 석축성벽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므로, 해남반도의 토착 마한세력과는 거리가 있다. 이번 현지조사 당시 고다산성에서 채집한 유물 역시 우각형파수를 비롯한 삼국시대 이후의 경질토기편과 통일신라시대 이후에 유행한 선조문 기와편들이 대부분이었다. 경질우각형파수편으로 보건데 남해안의 가야세력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지표에서 채집된 일부 유물만을 가지고 축성 주체를 판단하기에는 자료가 부족하다. 쐐기형성돌을 이용한 성벽의 축조기법으로 본다면, 오히려 통일기 신라 이후에 축조되었을 가능성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축조 세력에 대한 자세한 정황은 역시 성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져야만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이 밖에도 읍호리 성지의 경우에는 성벽이 심하게 훼손되어 성곽의 전체 현황을 파악할 수 없어 관련 내용을 언급하기가 어렵지만, 해남반도의 다른 고대 산성들과는 달리 포곡식산성으로 추정된다는 점에서 마한산성에서 제외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 7> 고다산성의 석축성벽



<사진 8> 고다산성의 성돌 결합방식



<사진 9> 고다산성 채집 토기편

3. 성마산성과 거칠마토성

성마산성이나 거칠마토성의 경우에는 토벽 사면에 석축을 부가한 구간이 확인되는데, 이들 유적에서는 삼국시대로 추정되는 토기편이 채집되고 있고, 인근에 신월리 방대형고분, 방산리 장고봉고분, 용일리 고분 등이 분포하고 있는 것을 볼 때 6세기대 이후에 축조되었을 개연성이 있다. 현재로써는 마한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언급하기가 어렵지만, 추후 발굴조사를 통해 축성세력에 대한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산이면 일대의 나머지 산성 유적들은 채집된 유물이 없어 현재로써는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다.



<사진 10> 성마산성 전경



<사진 11> 성마산성 석축구간



<사진 12> 거칠마토성 전경

Ⅲ. 해남반도 마한산성에 대한 재인식

Ⅱ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남반도의 고대 산성 중 마한시기에 해당할 수 있는 유적으로는 우선 옥녀봉토성과 일평리성지를 들 수 있다. 다만 일평리성지의 경우 전남문화재연구소(2016)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상부에 축조된 석축성벽은 입지나 출토 유물로 판단해 볼 때 삼국시대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는 있으나, 여러 증거를 종합해 볼 때 마한시기 산성과 연결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옥녀봉토성의 경우에도 그간 채집된 유물로 보건데 마한시기에 조성된 생활유적임에는 분명하나, 성벽으로 단정지을 만한 명확한 유구가 확인되지 않아 성격 규명에 어려움이 있다. 임영진(2003) 역시 옥녀봉토성이 3~5세기를 중심으로 활용된 것으로 보이나, 토성이었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고 하였다. 특히 후대의 파괴로 인해 토성벽이 남아있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으나 원래부터 토성벽이 없었을 가능성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하였다. 다만 채집된 유물의 중심연대가 3~5세

기에 걸쳐있고, 그 분포 범위가 넓어 단순한 생활유적으로 보기도 어려운데, 비교적 높은 고개마루에 유적이 입지하고 있고 정상 일대에서 패각이 동반된다는 점을 들어, 남해안의 양산패총이나 웅천패총처럼 고지성 주거유적일 가능성 또한 검토해봐야 한다고 하였다.

옥녀봉토성이 예전부터 학계나 언론의 관심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해당 유적의 성격에 대해 언급하기에는 조심스러우나 그 실체에 좀더 접근하기 위해 일단 남한지역에서 확인되는 이른 시기의 성곽유적과 비교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는 원삼국에서 삼국시대에 이르는 관방유적의 현황을 검토해 봄으로써, 마한 산성에 대한 단서를 확보하고자 함이다.

한반도 중남부지역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토성은 서울의 풍납토성과 몽촌토성으로, 모두 백제 중앙세력에 의해 축조되었는데, 축조시기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대체로 3세기 중후반 내지는 후반에 축조된 것으로 보인다. 한강 이남 지역에서 확인되는 지방 토성의 경우 이혁희(2013: 109쪽)에 따르면, 교호성토 기법으로 축조된 토성은 원삼국시기에서 한성백제Ⅰ기 유물이, 판축기법으로 축조된 토성은 한성백제Ⅱ기에 해당하는 유물이 주로 출토되고 있어, 이들 지방 토성의 축조 시기는 대체로 4세기 이후이다. 청주 정북동토성의 경우 성벽에 대한 전면적인 발굴조사가 실시되지 않아 명확하지는 않지만, 방사성탄소연대 측정결과값 등으로 추정해볼 때 3세기 중후반에 해당될 여지도 있으나(양시은, 2018), 축성 세력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발굴조사 및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여기에서는 다루지 않겠다.

영남지역의 초기 토성은 낙동강 이서 지역과 이동 지역에 따라 분포 양상을 달리한다. 낙동강 이동 지역에서는 경주와 경주로 통하는 교통로상에 분포하고 있는데, 신라의 도성인 경주의 월성은 3세기 말에 축조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달성과 임당토성을 대표로 하는 신라의 지방 토성의 경우에는 신라의 영역 확대에 따라 4세기 중엽 이후에 축조되었다. 반면 낙동강 이서 지역에서는 5세기 이후 김해, 함안, 고성 등과 같은 가야 연맹의 중심 지역에 토성이 축조되었음이

확인된다(박성현, 2007, 21쪽).

<표 2> 남한지역 주요 초기 토성(이혁희, 2007; 박성현, 2007 수정)

명칭	입지	둘레	성벽	연대	인접고분/기타
서울 풍납토성	강안 평지	3,500	판축 (교호성토)	3C후반	석촌동고분군 원삼국환호
서울 몽촌토성	평지 구릉	2,285	교호성토	3C후반	석촌동고분군
고양 덕절산토성	구릉	300	교호성토	5C	
화성 길성리토성	구릉	2,311	교호성토	4C전반	사창리고분군 요리고분군
화성 소근산성	산정식 해발110	629	판축	5C	
당진 성산리산성	산정식 해발67m	316	교호성토	4C중반	
이천 효양산성	산정식 해발188	1,500	교호성토	4C중반	
안성 망이산성	내:산정식 해발472	350	판축	5C	
청주 정북동토성	평지	675	판축	3C후반 ~4C	송절동고분군
충주 탄금대토성	구릉	420	교호성터	4C전반	제련시설
증평 이성산성	남:산정식 북:포곡식	741 1,052	남성 북성	4C중반 4C말	
경주 월성	평지 구릉	1,800	판축, 할석피복	3C말 5C증축	
대구 달성	평지 구릉	1,300	할석+점토	4C중엽	달성고분군
양산 순지리토성	낮은산지	960	판축	5C전반	조일리고분군
경산 임당토성	평지 구릉	950	판축	4C중엽	임당고분군 원삼국환호
김해 봉황토성	평지 구릉	1,200	판축, 할석피복	5C중엽	대성고분군 원삼국환호

한편, 영남지역에 토성이 조영되는 시점이 4세기 이후라는 이상의 연구 결과는 『삼국지』 동이전에서 진한과 변한에 각각 성책과 성곽이 있다는 기록과는 일치하지 않아 논란의 여지가 있다. 현재까지 영남지역에서 발견된 삼한시기의 방어시설은 토성이나 석성이 아닌 환호 시설로, 관련 유적으로는 양산 다방리유적, 창원 남산유적, 양산 평산리유적, 김해 봉황대유적 등이 있다.

고고학적인 양상과 문헌의 불일치에 대해 박성현(2007: 25쪽)은 4세기 이전 영남지역에서 확인되는 방어시설이 성곽이 아닌 환호시설이라는 점과 『삼국지』 倭人條에 나오는 一支國의 국읍으로 알려진 일본 이키(壹岐) 섬의 하루노츠지(原の辻)유적의 경우에도 750m에 이르는 3중 환호로 둘러싸여 있다는 점을 들어, 『삼국지』 동이전의 채록자는 환호 혹은 환호와 목책으로 이루어진 방어시설을 진한의 성책으로 기록했을 것이며, 변한 역시 진한과 같다는 뜻에서 "亦有城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영남지역의 이러한 양상은 마한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가능성이 있다. 아직까지 남한지역에서 마한의 성곽으로 확정지을 만한 유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한성백제기의 지방 성곽유적처럼 한성백제 양식의 토기가 거의 출토되지 않는 그리고 교호성토를 통해 토축성벽을 축조한 유적의 경우 재지계의 영향력을 어느 정도는 상정해볼 수는 있겠으나, 축조 세력을 백제가 아닌 마한과 바로 연결시키기에는 현재 직접적인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양상은 영남지역도 마찬가지이다. 해남반도의 고대 성곽 또한 이러한 양상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해남반도의 고대 성곽 중 가장 이른 시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옥녀봉토성의 경우에도 토성벽의 인위적인 조성 흔적이 발굴조사를 통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는 한, 현 시점에서 무리하게 토성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영남지역의 삼한시기의 방어시설이 환호 취락임을 고려해볼 때 구릉 정상부에 환호 내지는 자연 지세를 활용한 계단식 대지 등을 활용하여 방어를 한 취락이 있었을 가능성도 염두

해볼 필요가 있다. 영남지역에서는 진변한 이전시기인 초기철기시대에는 양산패총, 김해패총, 성산패총 등에서 목책의 흔적이 확인된 바 있으며, 이들 유적은 주로 방어가 용이한 얕은 구릉의 정상부에 입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처럼 토성이나 석성 등과 같이 본격적인 성곽 시설이 등장하기 이전 단계의 진,변한 지역에서 목책, 환호 등의 방어시설을 갖춘 취락이 구릉 정상부를 중심으로 조영되고 있음을 볼 때, 마한 역시 그러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비슷한 시기에 마한의 세력범위 내에서도 환호와 같은 방어시설을 갖춘 유적이 존재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해남반도에서도 이러한 유적들은 옥녀봉 일대에 자리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방어 시설을 갖춘 취락의 확인은 해남반도의 마한 정치체의 모습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마한 산성의 실체를 확인하는데도 중요하다.

다만, 4세기 후반 이후 해남반도의 마한 정치체가 백제나 가야, 왜 세력 등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운영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은데, 이는 관방 유적 외에도 일대의 고분과 함께 살펴봐야할 문제이다.

Ⅳ. 맺음말

이상으로 해남반도의 마한시기의 산성 문제를 간략하게나마 살펴보았는데, 아직까지 해남지역에서는 마한 시기의 성곽이라고 할 만한 유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다만 마한 초기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유적으로 옥녀봉토성을 들 수 있을 것인데, 현지 조사에서도 토성이라고 할 만한 분명한 증거는 확보할 수 없었다. 토성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발굴조사가 필수적이다.

그렇다면 해남반도를 포함한 전남지역에서 마한 시기의 성곽 유적은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 이와 관련하여서는 영산강유역에서는 백제

병합 이전의 마한 사회뿐만 아니라 백제에 병합된 이후에도 성곽이 축조되었을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어렵다는 임영진의 견해(2014)를 참고해볼 만하다. 그는 전남지역에서 마한 제국과 관련된 성곽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은 당시 마한 제국들이 성곽을 갖추어야 할 정도로 상호 경쟁적이거나 적대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며 백제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전쟁을 대비해야 할 만큼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한 바 있다.

그렇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마한과 동일 시기인 진한과 변한의 고고학적인 상황을 참고해볼 필요가 있는데, 영남지역에서도 4세기 이후에나 토성이 조영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이전에는 목책이나 환호 등으로 방어가 이루어진 취락 유적이 확인되고 있다. 해남반도 역시 유사한 시기의 고지성 취락 유적이 확인될 가능성이 높다. 보성 조성리에서 조사된 1~2세기대로 추정되는 환호유적과 장흥 지천리에서 기조사된 3세기대의 환호유적 등(임영진, 2013, 10쪽)이 참고가 될 수 있다. 방어시설을 갖춘 고지성 취락유적으로 옥녀봉토성이 바로 그러한 유적일 가능성이 높은 바, 앞으로 발굴조사를 통해 그 실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옥녀봉토성에 대한 앞으로의 발굴조사는 해남반도에 존재하였던 마한 정치체의 모습을 이해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투고일: 2018.9.15, 심사개시일: 2018.10.15. 게재확정일: 2018.11.30.]

【참고문헌】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2013, 『영산강유역 고대산성』
명지대학교부설 한국건축문화연구소, 2003, 『해남옥녀봉토성 지표조사 보고서』.
목포대학교박물관, 2003, 『문화유적분포지도 -전남 해남군-』.
문안식, 2015, 「서남해지역 마한사회의 발전과 연맹체 형성 -해남반도 백포만 일대를 중심으로-」, 『동국사학』58.
박성현, 2007, 「4세기 전후 신라의 토성 축조와 그 목적 -영남 지역 초기 토성의 성격」, 『한국사연구』139.
양기석, 2013, 「전남지역 마한사회와 백제」, 『백제학보』9.
양시은, 2018, 「정북동토성의 연대문제」, 『청주 정북동토성의 학술적 의미와 성과』, 충북대학교박물관.
양시은, 2018, 「해남반도 마한산성의 재인식」, 『해남반도 마한 고대사회 재조명』, 해남군·백제학회·(재)대한문화재연구원.
이도학, 1995, 「해남 지역 마한세력의 성장과 백제로의 복속 과정」, 『동아시아 문화연구』26.
이도학, 2013, 「영산강유역 마한제국의 추이」, 『백제문화』49.
이혁희, 2013, 「한성백제기 토성의 축조기법」, 한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임영진, 2003, 「Ⅳ. 마한의 발전과 옥녀봉유적」, 『해남옥녀봉토성 지표조사 보고서』, 명지대학교부설 한국건축문화연구소.
임영진, 2013, 「고고학 자료로 본 전남지역 마한 소국의 수와 위치 시론」, 『백제학보』9.
임영진, 2013, 「호남지역 삼국시대 고고학의 연구 성과와 과제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호남고고학보』45.
임영진, 2014, 「전남지역 마한 제국의 사회 성격과 백제」, 『백제학보』11.
전남문화재연구소, 2016, 『해남 일평리성지(죽금성) 문화재 학술조사

(시굴조사) 약식보고서』.
최성락, 2013, 「호남지역 초기철기시대와 원삼국시대의 연구현황과 전망」, 『호남고고학보』45.

【Abstract】

A Review of Mahan Fortress in Haenam-gun

Yang, Si-eun

This paper is an archaeological review of the distribution pattern of Mahan fortress in the Haenam-gun of Jeollanamdo.

As a result, there were no site in Haenam that could be regarded as fortress in the Mahan period. The Oknyeobong Site is mentioned as an important remains to show the early Mahan, but there was no clear evidence to be called fortress by survey. Unless the traces of the artificial construction of wall are clearly revealed through excavation, it is difficult to judge them as Mahan's fortress at this point.

Meanwhile, earthenwalls began to be observed in the Gyeongsang area after the 4th century, and prior to that, the remains of the ancient village, which were defended by wooden fences and trenchs, have been identified.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the site of the fortified settlement will be identified, even if the cases of the sites of Cho Seong-ri Site in Boseong and Jicheon-ri Site in Jangheung are seen, Oknyeobong Site is likely to have been high-altitude settlement sites equipped with defense facilities. The future excavation of the Oknyobong Fortress is expected to be of great help to understand the shape of Mahan politicians who existed in the Haenam.

Keywords: Haenam, Mahan, Mountain Fortress, Oknyeobong Site